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561

JCCT 2022-11-69

##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윤미진\*, 진혜경\*\*

Yun Mi Jin\*, Jin Hye Kyung\*\*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188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였다.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의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54 \pm 0.41$ ,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64 \pm 0.60$ 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의사소통능력, 학과만족도, 성별로 검증되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0.4%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Data were collected among 188 nursing students in G city, from Sep 5 to 20, 2021.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a using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0.0 WIN program. The average score for Communication competence was  $3.54 \pm 0.41$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3.32 \pm 0.85$ . Clinical practice stress showed Models including the variables, Communication competence, Major satisfaction, Gender explained 30.4% of the variance in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Based on the outcome of this study, steps should be taken to design intervention program that emphasize a improve Clinical practice stress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로 역할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한 이론 지식을 실무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1]. 최근 간호교육에서는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적 지식을 간호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2].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정회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참여저자)

접수일: 2022년 10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1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9일

Received: October 31, 2022 / Revised: November 6, 2022

Accepted: November 9, 2022

\*Corresponding Author: angelymj@hanmail.net

Dept. of Nursing, Kaya University, Korea

이론과 간호실무 현장의 차이, 비교육적 실습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실습업무 부담, 대인관계 및 환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3].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적응력을 높이는 학습환경의 조성과 효율적 임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4].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간호대학생들은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되며 심각한 위축과 좌절을 경험한다. 더 나아가 간호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신체적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5]. 이러한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을 이행하는 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임상실습 이행능력 향상과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를 역점 두어 다룰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수행능력을 효율적으로 상승시키며 간호중재를 실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임상현장실습에서 임상수행능력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6]. 하지만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교육 시 대상자와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기술의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서 서투른 의사소통능력은 문제해결능력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자아존중감을 더욱 낮게 만들고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 정립 및 이직 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7]. 간호사는 대상자와 함께 최적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긴밀하고 조력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여 대상자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8]. 의사소통 능력은 임상에서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환자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사의 임상 핵심역량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9]. 하지만 간호대학생은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임상실습 시 환자 및 보호자를 만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임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의사소통 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주된 관련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10].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에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성인 초기 발달 시기에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통한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은 중요하다[11], 예비간호사로서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의료팀과 병원 직원과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증진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를 규명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생인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총 19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서면동의를 받고 자가보고식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 190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불충분한 응답의 2명을 제외한 188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허경호(2003)가 개발한 포괄적인 대인 의사소통능력(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bility)을 이현숙[12]이 1명의 간호학 전공교수, 2명의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관리자에게 자문 받아 수정·보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총 15문항 중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5점, 그런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7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5$ 로 나타났다.

2) 임상실습 스트레스

최현영(1991)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Beck과 Srivastava (1991)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질의 스트레스 자료를 기초로 하여 김순례와 이종은(2005)[13]이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한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 5개 영역으로 실습교육 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순례와 이종은(2005)[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에서 연구목적과 내용 그리고 취지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어떠한 불이익 없이 거부, 중단 할 수 있음과 참여자의 자료는 부호화하여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연구가 종료된 이후 모두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집단별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27.7%, ‘여학생’은 72.3%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3학년’이 60.1%, ‘4학년’이 39.9%를 차지하였으며, 종교에서 ‘기독교’인 학생이 42.6%를 ‘불교’인 학생이 23.9%를 ‘종교가 없는’ 학생이 33.5%를 차지하였으며 동아리 활동은 참여가 55.3%, 미참여가 44.7%를 나타내었다. 학과만족도에서는 ‘만족’이 60.1%, ‘보통’이 30.3%, ‘불만족’이 9.6%를 나타내었으며, 그리고 간호학과 입학 동기는 ‘적성’이 5.9%, ‘취업보장’이 46.8%, ‘부모님의 권유’가 27.7%, ‘성적’이 19.7% 나타나 아래 Table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8)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52 (27.7)
	Female	136 (72.3)
Grade	3rd	113 (60.1)
	4th	75 (39.9)
Religion	Christian	80 (42.6)
	Buddhism	45 (23.9)
	none	63 (33.5)
Circle activity	yes	104 (55.3)
	no	84 (44.7)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13 (60.1)
	Moderate	57 (30.3)
	DisSatisfied	18 (9.6)
Motivation for admission	Considering aptitude	11 (5.9)
	Employment	88 (46.8)
	Recommendation of parents	52 (27.7)
	Correspond to score	37 (19.7)

2.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정도의 총 평균은 3.54±0.41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 총 평균은 3.64±0.60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실습교육 환경 이 3.72±0.79,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3.21±0.81, 실습 업무 부담 3.46±0.93, 대인관계 갈등 3.68±0.66, 환자와의 갈등 3.85±0.75를 나타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Table 2. Mean scor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N=188)

Variables	Average M±SD	Number of item
Communication competence	3.54±0.41	15
Stress in clinical practice	3.64±0.60	24
inadequate clinical environment	3.72±0.79	5
unadvisable role model	3.21±0.81	6
load of work & assignment	3.46±0.93	4
interpersonal conflict	3.68±0.66	4
relationship with patient	3.85±0.75	5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성( $t=-2.970, p=.004$ ), 동아리 참여유무( $t=1.810, p=.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3.80±0.38), 동아리 참여(3.80±0.42) 학생이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 $t=-3.454, p=.001$ ), 종교( $F=8.452, p=.000$ ), 학과 만족도( $F=11.318, p=.000$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3.76±0.87), 불교인 학생(3.30±0.38), 학과만족도에서 불만족 하는(4.18±0.79) 학생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4.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 학년, 종교, 동아리 활동 유무, 학과 만족도, 간호학과 입학동기를 독립변수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in Communication compet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y		Communication compet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M±SD	t/F	p(Duncan)	M±SD	t/F	p(Duncan)
Gender	Male	3.09±0.44	-2.970	.004	3.33±0.83	-3.454	.001
	Female	3.80±0.38			3.76±0.87		
Grade	3rd	3.69±0.26	1.119	.265	3.69±0.29	.947	.345
	4th	3.49±0.47			3.58±0.13		
Religion	Christian	3.75±0.45	1.000	.370	3.78±0.44	8.452	.000 (1,2>3)
	Buddhism	3.44±0.42			3.86±0.38		
	none	3.55±0.45			3.32±0.29		
Circle activity	yes	3.80±0.42	1.810	.05	3.67±0.44	.448	.655
	no	3.46±0.45			3.62±0.58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50±0.29	1.076	.343	3.50±0.19	11.318	.000 (3>1,2)
	Moderate	3.73±0.28			3.57±0.90		
	DisSatisfied	3.82±0.42			4.18±0.79		
	Considering aptitude	3.07±0.14			3.40±0.11		
Motivation for admission	Employment	3.60±0.27	.763	.516	3.71±0.44	.893	.446
	Recommendation of parents	3.67±0.47			3.54±0.38		
	Correspond to score	3.70±0.36			3.70±0.27		

공차한계는 각각 0.801~0.973, 0.898~0.946으로 0.1이상으로 나왔으며, 분산팽창인자를 구한 결과 1.026~1.246, 1.074~1.154의 2 이하로 낮게 나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대상자들의 의사소통능력( $\beta=.484$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다음으로 학과만족도( $\beta=.255$ ), 성( $\beta=.153$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의사소통능력, 학과만족도, 성이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F=14.643$ ,  $p<.000$ ),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0.4%로 나타나 아래 Table 4와 같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예측요인  
 Table 4. Influencing factors clinical practice stress

Variables	$\beta$	SE	$t$	$p$	$F$
Communication competence	.415	.041	7.544	.000	56.910
Major satisfaction	.276	.063	4.125	.000	39.413
Gender	.150	.150	.153	.016	28.923

Adj.R<sup>2</sup> = 30.4, F=14.643, p<.000

####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를 이해하고,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5점 만점에 3.54점을 나타내었고 김민아 등[14]의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3.66점으로 나타나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신수정 등[15]의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58점, 조미정 등[16]의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점수 3.60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에 3.64점으로 나타내었고, 강민아 등[14]의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에 2.90점, 신수정 등[16]의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는 3.06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 중 임상실습을 한 학기만 이수한 3학년 학생비율이 다른 연구에

비하여 높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그리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부요인으로는 환자와의 갈등이 3.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실습교육환경, 대인관계 갈등, 실습업무 부담,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3학년 학생이 다수이고, 첫 임상경험 후 연구에 참여한 결과 동료가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하고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판단되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바람직하지 않은 역할모델은 여러 방법을 통한 산학간담회, 산학협력을 통해 임상현장지도자의 정체성이 많이 확립되어 나간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강민아 등[14]의 연구결과에서는 실습업무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간정도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학생들과의 의견 공유와 부적절한 과제의 생략 등으로 많은 양의 보고서와 평가에 따른 부담을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여학생일수록,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미정 외[16]와 한승희 외[17]의 남학생일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반대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여학생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학과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미정 외[16]와 한승희 외[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임상실습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강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학과에 만족하는 학생은 임상상황이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과 교과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교육기간 동안 간호대학생이 간호직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작업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된 변수들과 영향을 준 일반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의사소통능력, 학과만족도, 성별이 영향을 주었고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30.4%였다. 이는 조미정 외[16], 김순희 외[18]의 의사소통능력과 학과만족도가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결과와 동일하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학과에 만족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아짐에 따라 간호학과 교육과정 개발단계에서 의사소통관련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지식을 함양하고, 재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과과정 개편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출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그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 학과만족도, 성별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인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용 단계에 의사소통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체계화된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학교를 표의표집 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과 표집 방법으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1] M. O. Kim.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6, 609-617.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6.6>

[2] H. S. Kim.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16, No.1, 64-76. 2002.

[3] J. H. Kim. Relationships Nursing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2, 409-415, 2014.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38>

[4] M. J. Oh, Perspectives on the Coping Strategies about Pract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Vol 6, No3, 423-436, 2000.

[5] Y. S. Ham, H. S. Kim.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14-23, 2010.

[6] M. S. Kwo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3, 387-394. 2011.

[7] H. S. Yu, A study on self-esteem and turnover intention of new nurs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0. Seoul.

[8] M. S. Yoo, Y. S. Kim, Y. S. Kim, M. S. Hwang, J. A. Ahn. Analysi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Solving Capacit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Vol.7, No.1, 18-27. 2012.

[9] T. W. Reader, R. Flin, B. H. Cuthbertson. Communication skills and error in the intensive care unit. Current Opinion in Critical Care, Vol. 13, No.6, 732-736. 2007. DOI: 10.1097/MCC.0b013e3282f1bb0

[10] S. Y. Yang.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6, No.9, 286-296. 2016. DOI: 10.5392/JKCA.2016.16.09.28

[11] Lim, S. J, Park, E. Y.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pattern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fter 'satir communication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2, 151-162. 2013.

[12] H. S. Lee.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ability, Communication Types,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10. Seoul.

[13] S. L. Kim, J. E. Lee. Relationships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98-106, 2005.

[14] M, A, Kang.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4, 452-461. 2016.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3.290>

[15] S. J. Shin, M, S,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Stress Coping, and Clinical

-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7 No.5, 441-455. 2016. DOI <http://dx.doi.org/10.22143/HS S21.7.5.23>
- [16]M. K. Cho, H. Jeong. A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on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1. 539-547, 2018. <https://doi.org/10.15207/JKCS.2018.9.11.539>
- [17]S, H, Han.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0. 217-227. 2016.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10.51>
- [18]S, H, Kim, Y, J, Jee.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7, 421-431. 2019.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7.03>